

Abstract Type : Oral Presentation
Abstract Submission No. : F-005124

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시행 한 환자의 알코올 의존도와 가족의 공동 의존 정도 분석

JIEUN LEE¹, JEEHAE HUH², Kyung Ock Jeon²

¹Department of Transplantation Surgery, Severance Hospital, Yonsei University, Republic of Korea

²Department of Organ transplant center, Severance Hospital, Yonsei University, Republic of Korea

Introduction: 알코올성 말기 간질환의 치료법으로 간이식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다. 질환별 뇌사자 간장 수혜자는 간장분배 기준이 MELD 로 변경 이전인 2015년에는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뇌사장기간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가 132 건(뇌사장기 간이식의 28.9%)이었으나 변경된 이후인 2016년에는 166 건(32.6%), 2020년 184 건(46.6%)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.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시행한 환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생존율의 증가를 위해서는 수술 후 음주 습관 재발 예방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재음주 예방을 위한 접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 대상자마다 간이식 시행 전 알코올 의존 정도와 가족 공동의존 정도를 분석하였다.

Methods: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시행한 41명을 대상으로 환자는 알코올 의존 진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2013년 미국정신과협회에서 정한 DSM-5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 정도를 진단하였고 후보호자를 대상으로 한국판 공동의존 자가점검표(CODA Version)를 사용하여 공동의존 상태 정도를 확인하였다.

Results: 41명의 평균연령은 51.3세였고 남자 31명, 여자 10명이었다. 이들 중 3명의 환자에게는 뇌사자 전간이식, 38명의 환자에게는 생체부분 간이식이 시행되었다. 41명의 대상자의 알코올 의존도는 알코올의존도 없음 5명, mild 4명, moderate 9명, severe 23명이었다. 후보호자에 대한 공동의존상태 조사 결과 총 41명의 후보호자 중 공동의존상태로 판단 14명, 공동의존 상태가 확실 6명으로 조사되었다. 알코올 의존도 별 후보호자 공동의존 상태를 확인한 바 알코올의존도 mild 환자에서 공동의존 상태 2명, 공동의존 확실 1명, 알코올의존도 moderate 환자에서 공동의존 상태는 4명, 공동의존 확실은 0명이었다. severe 단계의 알코올의존도 환자에서 공동의존상태는 8명, 공동의존 확실은 4명으로 나타났다.

Conclusion: 알코올성 말기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알코올 의존도 진단 및 가족 공동의존 상태 조사 결과 대상자별로 알코올 의존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주 보호자와의 가족 공동의존 상태 또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. 수술 후 음주습관 재발은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을 유발하고 약 복용 및 외래 방문 순응도를 감소시켜 이식편 간 기능 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간이식 시행 전 알코올 의존도 단계에 따른 재음주 예방에 대한 접근 전략과 공동의존 상태에 있는 가족까지 포함한 재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. 본 연구는 간이식 전 환자와 후보호자 각 4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조사가 시행되어야겠다